

2020학년도 송실대학교 신입학  
**모의 논술고사 문제지(인문계열)**

지원학과(부)		수험번호		성명	
---------	--	------	--	----	--

※ 주의사항(문제 1~2번 공통)

- ① 답안 작성 시 검은색 필기구(연필·볼펜·사인펜 등)를 사용해야 하며, 검은색 외의 다른 유색 필기구를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 ② 답안을 수정하려면 연필의 경우 지우개로 지우고 작성하며, 기타 검은색 필기구의 경우는 수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 그 줄 위에 작성해야 합니다.(수정액 지참 및 사용 금지)
- ③ 답안의 작성은 우리말 문법과 원고지 사용 규칙을 따릅니다. 답안의 분량은 각 문제에서 정한 글자 수를 준수해야 하며, 정해진 글자 수를 초과하거나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감점됩니다.
- ④ 각 문제의 답안은 반드시 해당 답란에 작성해야 하며, 작성한 문제의 답안이 해당 답란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답안은 무효 처리됩니다.
- ⑤ 제시된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답안지에 다시 옮겨 적지 말고, 답안의 내용을 구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제목이나 번호를 달지 마시오.
- ⑥ 제시문의 일부 문장을 직접 인용할 경우 따옴표로 인용 표시를 해야 하며, 직접 인용의 경우 외에는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지 마시오.
- ⑦ 답안지에 문제와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표지(標識)나 본인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이 있을 경우 답안 전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를 활용하여 <보기>에 나타난 찰스 크리스트와 일부 경제학자들의 입장을 비교하시오.(700±70자)

**문제 2** 위의 비교와 제시문 【마】를 토대로 제시문 【바】의 그림에 담긴 메시지에 대해 논술하시오.(800±80자)

**<보기>**

2004년 여름 멕시코 만에서 세력을 일으킨 허리케인 찰리가 미국 플로리다를 휩쓸고 대서양으로 빠져나갔다. 그 결과 스물두 명이 목숨을 잃고 110억 달러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하였다. 뒤이어 가격 폭리 논쟁이 불붙었다.

나무가 쓰러지는 바람에 전기톱과 지붕 수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건설업자들은 지붕을 덮친 나무 두 그루를 치우는 데 무려 23,000달러를 요구했다. 가정용 소형 발전기를 취급하는 상점에서는 평소 250달러 하던 발전기를 2,000달러에 팔았다. 일흔일곱의 할머니는 나이든 남편과 장애가 있는 딸을 데리고 허리케인을 피해 모텔에서 묵었다가 하루 방값으로 160달러를 지불해야 했다. 평소 요금은 40달러였다.

플로리다 주민들은 바가지요금에 분통을 터뜨렸다. <USA 투데이>는 ‘폭풍 뒤에 찾아온 약탈자’라는 머리 기사를 실었다. 한 주민은 지붕 위에 쓰러진 나무 한 그루를 치우려면 10,500달러가 들 것이라며 남의 불행과 고통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행위는 부도덕한 것이라고 하였다. 플로리다 주 법무 장관 찰리 크리스트도 같은 생각이다. “허리케인이 지나간 뒤에 남의 고통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의 탐욕이 도를 넘었다.”라고 하였다.

플로리다에는 ‘가격 폭리 처벌법’이 있어서, 허리케인이 지나간 뒤 법무 장관 사무실에 2,000건이 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었다. 이 중에는 소송에서 승리한 경우도 있다.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숙박업소 데이스 인은 벌금 7만 달러를 내고 추가로 받은 숙박료를 투숙객에게 돌려줘야 했다.

그러나 크리스트가 가격 폭리 처벌법을 집행하려 하자 일부 경제학자들은 해당 법에, 그리고 주민들의 분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제시문 【가】**

공정 여행은 단지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것, 소비가 아니라 관계라고 믿는 사람들의 새로운 여행 방식이다. 이 개념은 제3세계에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공정 무역의 의미가 여행 상품과 결합된 것이다. 공정 무역이 한 잔의 커피를 마실 때 마시는 사람의 행복만이 아니라 그 커피콩을 생산한 농부의 행복까지 생각하듯이 여행할 때에도 환경, 경제, 인권을 고려해야 한다. 여행은 개인적으로 보면 자유, 성장 등의 의미를 갖지만, 산업적으로 보면 거대한 세계 경제의 축이다. 영국의 공정 여행 비

정부 기구(NGO)에 의하면 우리가 여행에서 쓰는 돈 중 단 10%만 현지에 쓰일 뿐 대부분은 항공 회사나 다국적 기업이 있는 선진국으로 돌아간다.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관광 개발의 그늘 아래 파괴된 마을과 숲이 남는다. 공정 여행은 나만을 위한 여행이 아니라 내가 여행에서 머무는 곳의 숲과 동물을 돌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는 '새로운 여행'을 일컫는 말이다.

### 제시문 【나】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선택을 한다. 일찍이 애덤 스미스가 말했듯이, 빵집 주인이 아침마다 빵을 구워 파는 것은 주민들의 식사 거리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빵을 팔아 돈을 벌기 위해서이며, 빵을 구입하는 사람 역시 빵집 주인의 생계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빵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환경이 변하면 그에 따라 선택도 달라진다. 만일 빵 가격이 오른다면 빵집 주인은 더 많은 빵을 만들어 팔고 싶겠지만, 빵을 구입하는 주민들은 빵 소비를 줄이려고 할 것이다. 만일 빵 만드는 사람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빵집은 지금보다 더 늘어나고 빵 생산도 증가할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이나 제도 등을 가리켜 유인, 즉 인센티브(incentive)라고 한다. 유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관련 당사자에게 이익으로 작용하는 긍정적인 유인이고, 다른 하나는 비용이나 불편으로 작용하는 부정적인 유인이다. 빵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판매자에게는 긍정적 유인이지만, 구매자에게는 부정적 유인이 된다.

### 제시문 【다】

기후 변화 협약은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 협약으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협약의 강제적 구속력이 부족하여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자 협약 당사국들은 협약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교토 의정서를 채택하였다.

교토 의정서는 선진국에게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에 대한 강제성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하였다. 각국 정부는 자국에 부과된 온실가스 배출 상한치를 자국 내 기업들에게 할당해 주었다. 배출 상한치를 넘지 않은 기업은 남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탄소 배출권으로 팔 수 있는 반면, 배출 상한치를 초과한 기업은 초과한 만큼 탄소 배출권을 사야 한다. 이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방안이다.

교토 의정서를 시행함에 따라 향후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및 무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 노력이 더욱 체계화되고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 제시문 【라】

사회 속의 개인은 고립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존재이며, 따라서 각 구성원에게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까지 존중하기 위한 자세가 요구된다. 반면 한 개인으로서의 자유와 개인적 선의 추구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공동체의 기본 원리를 구성할 때에도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에 대해 배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질서와 자유가 조화된 공동체, 공동체로서의 연대를 확보하면서도 개인적 자유가 위축되지 않은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원리가 필요할까? 이러한 원리로서 제시되는 것이 '연대성의 원리'와 '보조성의 원리'이다.

연대성의 원리는 개인들 서로는 물론 개인과 사회 상호가 서로에 대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서로를 책임지고 돌보아야 한다는 원리이다. 이러한 연대성의 원리는 이른바 '모두가 함께 책임진다.'라는 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한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통과 불평등, 부정의 등에 대해 모두가 함께 책임진다는 의식을 가짐으로써 서로 연대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조성의 원리는 연대성의 원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원리로서 공동체에서 각 개인과 공동체가 어떻게 각자의 책임을 분배하고 해결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원리이다. 보조성의 원리에 따르면 각 개인은 먼저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이 하기에는 어렵거나 비효율적인 일들은 공동체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 또한 공동체를 통한 문제의 해결도 작은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은 공동체가 우선하여 해결하고 그 이상의 문제들은 더 큰 공동체에서 해결해 나가도록 한다.

### 제시문 【마】

사과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사과 꽃에 눈부시던 햇살을 먹는다.

사과를 더 푸르게 하던 장맛비를 먹는다.

사과를 흔들던 소슬바람을 먹는다.  
 사과나무를 감싸던 눈송이를 먹는다.  
 사과 위를 지나던 벌레의 기억을 먹는다.  
 사과나무에서 울던 새소리를 먹는다.  
 사과나무 잎새를 먹는다.  
 사과를 가꾼 사람의 땀방울을 먹는다.  
 사과를 연구한 식물학자의 지식을 먹는다.  
 사과나무 집 딸이 바라보던 하늘을 먹는다.  
 사과에 수액을 공급하던 사과나무 가지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세월, 사과나무 나이트를 먹는다.  
 사과를 지탱해 온 사과나무 뿌리를 먹는다.  
 사과의 씨앗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영양분 흙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흙을 붙잡고 있는 지구의 중력을 먹는다.  
 사과나무가 존재할 수 있게 한 우주를 먹는다.  
 흙으로 빚어진 사과를 먹는다.  
 흙에서 멀리 도망쳐 보려다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사과를 먹는다.  
 사과가 나를 먹는다.

**제시문 【바】**

이 그림은 거대한 산 능선을 그린 풍경화인 듯하지만, 달리 보면 인간의 몸으로 보이기도 한다. 두 갈래로 난 긴 선은 인간이 만든 길일 수도 있고 인간의 몸에 난 상처일 수도 있다.

